불자 세상보기

소통과 관심, 불통과 외면



석 길 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분노하는 국민, 외면하는 지도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 몇 주간의 정국을 바라볼 때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쉽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 여파로 지난 며칠간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로 곤두박질 쳤고, 이제는 민심 저 바닥에서부터 탄핵, 하야 같은 말들이 서슴없이 오르내릴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지치고, 화나고, 어이없는 민심을 대변하는 말들일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란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날 정도이니 더 말할 것도 없는 셈이다.

본래 정치인들이 민심을 운운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일이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의 민심은 한결같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는 것. 지지율 10% 내외라는 수치는 그러한 대다수의 민심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결과 20대가 1.6%, 30대가 3.1%, 40대가 7.7%, 50대는 10.6%이고 60대 이상에서만 27%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한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국민 20명 중 1명꼴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 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추락하기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이 마침내 정점을 찍은 듯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태도는 굳건해 보인다. 정치권의 합의는 둘째 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인사를 파면하고 새로운 인사를 등용하는데 훨씬 더 신중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인사 교체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아니 분노는 커녕 의사라도 조금이나마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는 아니다' 라는 민심은 아예 없는 듯 한 태도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조그만 친목모임부터 국가 단위의 거대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이미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도자를 뽑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구성원들이 무작정 그들의 삶을 개선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것도 아니다.

구성원들은 그저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도록 많은 사람의 의사를 지혜롭게 끌어 모으고, 그것을 앞서서 구체화시키는 정책 실행의 리더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신 빠진 모 공무원이 말했던 것처럼 무지렁이가 아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단히 지혜롭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분한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현실 속에서 최선의 조건을 찾아나가도록 지지하고, 그럴만한 이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보살핌을 요구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과 의사를 반영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서로 적대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부처님은 그런 개인들에게도 일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가르친다.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하나로 모아내야 하는 지도자라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의 의견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의견도 기꺼이 공동체의 나아갈 길에 반영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가라는 단위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국정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개인 하나하나가 아니며, 대부분 공적인 이익과 연관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공공성을 반영해가는 현장이 바로 국정이기 때문이다. 그 공공의 현장에 개인의 의사가 주로 반영되는 참담한 국정현실, 거기에 절망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불통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어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체 중생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은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

기자칼럼

조계종의 출입기자 규정 정비를 보며



노 덕 현
취재부 기자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출입기자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내규 상태로만 있던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강력한 출입기자 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변변한 규정조차 없었던 조계종이 출입언론에 대한 기준, 취재 편의와 지원을 사회의 여러 기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나무랄 수가 없다. 김영란법 도입으로 인해 취재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당위성도 충분하다.

불교언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두루뭉실하게 운영돼 온 기자단 제도가 최근의 언론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와해된 것이 이번 등록제 도입의 한 원인이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친 탓이었는지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논의 단계에서 일부 언론에 채 완성되지 못한 규정안이 유출됐고, 세부 내용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러 불교계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초 조계종 총무원이 주장한 의미는 상당부분 빛바랜 듯 보인다.

여기에 총무원 측이 언론에 배포한 추진안을 살펴보면 다양한 조항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

가장 먼저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거부 조항이다. 이 조항은 △허위 · 왜곡보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자 △종단에서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받았던 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자 △1호 등의 행위로 종단 출입제재를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기자 △'불교 및 유사조계종' 이 포함된 제호를 사용하여 종단 공인을 받은 언론사로 오인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자 등으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허위 · 왜곡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려니와 행위의 범위를 과거까지 확장한 점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제적 징계 후 복적된 스님이 운영하는 언론사, 또는 한때라도 출입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기자는 모두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등록 취소의 규정도 취재에 제한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괄적으로 홍보국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그 것이다. 취재 현장에서 보면 조계종 총무원의 부처마다 언론과의 관계는 달랐다. 불교계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더 중요한 부처도 있고, 홍보가 더 중요한 부처도 있다. 조계종의 출입기자 등록제가 성공하려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 규정 내에도 부처별로 차별화나, 종단 내 시스템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인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불자들과 불교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언론을 멀리할 수도 없고, 멀리해서도 안 된다. 조계종 총무원 취재에서는 오랜 관행을 지닌 각 언론사의 취재 시스템이 있기에 이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이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규정 정비도 궁극적으로는 불자들을 위한 봉사에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론도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과 관행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곤란하다. 문제의 핵심은 불교계 언론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국민의 알 권리와 불자들의 신심 고취 및 불법 홍포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조계종은 출입기자 등록제도 도입은 그동안 주먹구구식 종단 언론 지원 및 관리의 큰 변화임에 분명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도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도화 문턱에서 불교계 안팎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社說

최순실 사태로 종교 역할 되짚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내외로 하락했고, 매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배경에는 종교가 있다. 아버지 최태민 목사는 과거 영생교를 이끌었고, 박 대통령은 영애 시절부터 그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때부터 내려온 인연이 자신의 육영재단, 영남대를 좌지우지하게 했고, 이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는 국정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박 대통령 이후 터진 굵직한 사건에는 유독 종교가 연관돼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된 세월호 참사에는 구원파의 유병언이 있었고, 현 사태에는 영생교의 최태민 · 순실 부녀가 있다.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종교가 커넥션을 갖고 밖으로 나와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흥 종교들이 전부 사이비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문제는 종교가 보여야할 사회적 가치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종교의 본령은 인간의 행복과 안녕에 있다. 불교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고, 개신교는 구원과 사랑일 것이다. 기성 종교라고 해도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혹세무민을 일삼는다면 그 행위는 '사이비' 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현재 한국불교는 부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렇다' 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 대선 때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할 종교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히 '전륜성왕' 과 '선덕여왕' 에 비유하며 입이 닳도록 상찬했던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종교가 보수화돼 기득권을 위한 종교로 남는다면 종교는 종교로서의 위치를 잃게 돼 있다. 최순실 사태는 종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반면교사의 계기이다.

총림 체계 재정립 시급하다

많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과 같이 많은 스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절차 탁마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총림. 이 총림의 위상이 출가자 급감에 흔들리고 있다.

조계종의 8대 총림 실사 결과 대부분이 정원미달로 나타난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열린 제207차 정기회에서 총림 실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총림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인원 미달을 지적받은 총림은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덕숭총림 수덕사, 쌍계총림 쌍계사, 조계총림 송광사, 해인총림 해인사 등 6곳이었다. 5곳이 승가대학, 1곳이 율원의 인원이 미달됐다.

종령에는 승가대학 등에 학년 당 10명, 총 40명의 최소정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 요건을 대부분이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와 함께 총림법에 규정된 총림 요건인 선 · 율 · 강 · 염불원의 4개 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도 전무했다.

출가자 급감은 불교계의 큰 문제다. 이 영향이 승가대학 교육 체계 뿐만아니라 수행 전반을 책임지는 총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고령화되는 승단 구조에 맞춰 소임 연령을 높이는가 하면 기존 교육에 전문성을 부여해 출가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있고, 승단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는 출가자 감소를 불교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